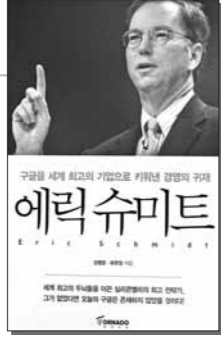


화제의 책

에릭 슈미트  
구글 초고속 성장 비결과  
감성경영 10년간 발자취

강병준·류현정 지음, 토네이도 퍼냄



지금까지 구글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은 단연 두 명의 창업자였다. 하지만 오늘의 구글을 만든 주인공은 바로 지난 10년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기업의 전성기를 이끈 '에릭 슈미트'다.

그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와 비교하면 우리에게 다소 낯선 인물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최고 전락자로 평가받으며 위대한 경영자이자 엔지니어로 손꼽힌다.

구글은 이미 단순히 성공한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혁신 기업의 대표 선수로 떠올랐다. 그런데 에릭 슈미트가 합류하기 전 구글은 창업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익을 내지 못한 신생 벤처기업에 불과했다. 모두의 만류에도 구글호에 올라탄 에릭 슈미트가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기업을 흑자로 돌려놓은 것은 물론이고 그 흔한 성장통도 겪지 않은 채 지금까지 매년 20% 이상의 매출과 순이익을 늘렸던 것이다. 생존과 존폐를 걱정하던 구글을 하루아침에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으로 변화시켜 놓은 에릭 슈미트. 미국 실리콘밸리와 월가에서 '구글을 세운 것은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지만 구글의 성공을 이끈 것은 바로 에릭 슈미트'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구글의 초고속 성장 신화를 써내려온 에릭 슈미트의 지난 10년간 발자취를 정리한 이 책은 단순한 경영이론서가 아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들고 진정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라'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마우스 하나로 국경과 시공간을 무너뜨리며 세계를 지구촌으로 만들었다. 뒤를 이어 구글의 에릭 슈미트는 검색으로 IT산업 패권을 잡았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으로 라이프스타일을 바꿨다. 이 세 사람은 1955년 동갑내기 오렌 친구이자 경쟁자다. 빌 게이츠는 2001년 스티브 잡스에게 자리를 내줬고 스티브 잡스는 건강 이유로 휴직한 상태다. 그리고 2011년 마지막까지 일선에 남아 있던 에릭 슈미트는 회장으로 한발 물러섰다.

이 책은 기술보다 아날로그적 감성을 강조하는 에릭 슈미트의 이야기를 통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나침반이자 변화의 원동력을 제시한다. 1만5000원.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우리는 미래를 훑쳐 쓰고 있다  
인류에게 닥친 환경 위기  
에너지 정책 바뀌야 극복

레스터 브라운 지음, 이충욱 옮김, 도요새 퍼냄



일본 대지진과 최악의 쓰나미, 한반도를 핏공 열게 한 기록적인 한파, 호주 퀸즐랜드의 폭우, 파키스탄 대홍수 등 기후 재앙이 지구 곳곳을 강타하고 있다.

이상 기온의 여파로 치솟는 밥상 물가와 끔찍한 구제역 사태는 환경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기후변화는 지구촌 식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공통 과제임에 틀림없다. 기후전쟁은 다음 세대가 누릴 지구의 미래까지 훑쳐 쓴 대가이기 때문이다.

세계 석학이자 37년간 기후변화 문제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환경운동가 레스터 브라운은 이 책에서 인류에게 닥친 환경 위기를 진단한다. 또 전 지구적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을 제시한다. 기후 변화는 단순히 과학 이슈가 아니라 세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정치, 사회, 문화의 문제라고 경고한다.

인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 문제와 기후 생태계 변화로 삶의 터전을 잃은 환경 난민,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화석연료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경제 부문인 식량 위기 또한 인구 증가, 낮아지는 지하수면,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온도, 녹아가는 빙하, 곡물로 자동차 연료를 생산하는 것 등의 요인이 얽혀 있음을 밝힌다. 레스터 브라운은 환경 위기의 대안으로 '플랜 B'를 외친다. 지구를 파산 위기로 몰고 온 현재까지의 추세를 '플랜 A'라고 한다면 파산하는 지구를 구하는 생태경제학이 플랜 B다.

이 책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면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석유에 의존한 세계 에너지 경제의 국제화가 20세기의 특징이라면 21세기는 풍력, 태양열, 지열로 전환하는 에너지 생산의 지역화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한다. 2만5000원.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독스 클로즈업 | CEO, E-DISCOVERY를 고민하다

한국EMC 지음, 전자신문사 펴냄

법적 분쟁서 이기려면 디지털 자료 충분히 준비해라

지난 2005년부터 브로드컴과 특허 분쟁을 벌였던 쉘컴은 2008년 특허 소송에서 20만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이메일과 전자문서의 존재를 감했다. 당시 법원은 쉘컴의 변호사들이 소송 증거 보존 실패 및 은닉 행위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자 쉘컴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브로드컴의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 850만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쉘컴 변호사들 또한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으로 징계 받았다. 지난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MS)는 Z4테크놀로지와의 특허 소송에서 이메일과 관련 데이터의 증거 개시 요청을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미 법원은 MS 측에 패소 판결과 함께 250억원에 달하는 배상을 명령했다.



같은 해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램버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 측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했다. 램버스는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일부 중요 문건을 불성실하게 누락했다며 이는 연방민사소송규칙(FRCPP)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기업들 간의 법적 분쟁에서 전자문서와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 자료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는 세 가지 사례다. 이들 사건의 공통된 결론은 디지털 증거 자료를 소홀히 준비했던 쪽이 모두 패소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 2006년 12월 개정 민사소송법

(FRCPP)을 통해 소송 당사자 양방이 재판 개시 전에 디지털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전자증거개시제(E-Discovery)'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증거개시제란 한마디로 증거 제출 범위를 이메일과 전자문서 등 디지털 자료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제 거의 대다수 업무가 이메일과 전자문서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디지털 데이터는 필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증거자료를 얼마나 충분히 준비하는지에 따라 법적 분쟁의 승패가 갈리는 시대가 됐다. 전자증거 개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모건스탠리는 6억달러, MS는 2000만달러,

쉘컴은 850만달러, 삼성전자는 로열티로 5년간 매년 9800만달러의 벌금을 각각 내야 하는 등 소송 사례는 널려 있다.

5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자증거개시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을까.

현실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한국 대표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해도 이메일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국제 소송에서 거액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향후 특하나 공정 경쟁 관련 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

책은 전자증거개시제의 개념을 상세히 소개하고 다양한 현장의 사례를 담은 첫 신간이다. 전자증거개시제 관련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한국EMC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책 한 권에 총정리했다. 전자증거개시제를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입할지 등 여러 가지 방법론을 친절하게 수록했다.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겪게 될 국제 분쟁에서 전자증거개시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라잡이로서 손색없어 보인다. 2만원. 서한기자 hseo@etnews.co.kr



이은용기자의 책 다시보기 | 물의 자연사

앨리스 아웃워드 지음, 이충호 옮김, 예지 퍼냄

“자연 그대로가 최고의 정화장치”라는 걸 잊지마세요

“담·보·(인공)수로 말고, 비버·버펄로·프레리도그!”

매년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1992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결정했고, 올해로 열아홉 번째다. 그날을 일주일쯤 앞둔 16일 서울 태평로 1가 프레시센터에서 '2011년 물의 날 및 (부국환경포럼) 수도권 본부 창립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행사 주제는 '물과 위대한 국가 건설:4대 강 살리기 다음 과제는'이었다.

이 행사 초청장을 10일에 받았다. 주최자인 부국환경포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인류 문명의 모태입니다'로 시작하는 짧은 초대의 글에 이끌렸으니 곧바로 '아~' 하는 느낌표. '국민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하되 '위대한 국가 건설'을 위한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다음 과제'를 찾겠다는 그들과 나의 '물의 소중함'에 관한 서로 다른 이해. 그리고..., 먹먹한 가슴. 늘 선부른 기대는 금물이지늘, 언제나 미련 때문에 실망을 되풀이하는 우둔함까지였다. 하긴 개

발도상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고, 수자원 보존과 먹는 물 공급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목표였지만 '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 너무 큰 기대를 했을 터였다.

행사에 참석한 여러 교수님과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에게 '물의 자연사(Water:A Natural History)'를 권한다. 한반도 물에 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원작이 나온 '1996년'에 한국에 소개돼 그가 읽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을, 2010년에야 옮겨진 게 안타깝다.

바로 그가, 멋진 '깃털 달린 비버(가죽) 모자' 때문에 북미 신대륙에서 비버가 사라진 뒤 미국 사람들이 잃은 게 무엇인지를 깨닫기까지 수백년이 걸린 것(34쪽)을 알아야 했다. 버펄로 발굽이 만드는 '원뿔형 지하수 재충전 연못(125쪽)'과 프레리도그가 판 땅 밑 터널의 가치(143쪽)를 알아야 했다. 바로 그가, 컬럼비아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고인 물이 모여 있는 일련의 호수들인 이유(185쪽)를 알아야 했다. 미

시시피·오하이오·미주리강의 자연 수로를 억지로 바꾼 탓에 국지적 홍수 대신 하류 쪽 홍수가 늘어난 이유와 인위적인 배수를 위해 수로를 깊게 하는 게 그 지역 지하수면을 낮추는 결과를 낳았음(208쪽)을 알아야 했다. 비버·버펄로·프레리도그와 함께 앨리게이터, 숲, 굽은 흐름(곡류), 범람원이 사라지면서 강은 물론이고 땅의 풍요로움까지 줄었다(282~283쪽).

바로 그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오늘날(미국) 공병대가 키시미강을 제방과 갑문에서 해방시키고, 습지를 회복시키려 노력(289쪽)" 하는 이유다. 1928년에 220km짜리 구불구불한 키시미강을 애써 '곧게 뻗은 길이 90km, 폭 50m, 깊이 9m짜리 운하'로 만들었는데, 지금 '왜' 애초의 강에 가깝게 되돌리려 맘을 쏟겠는가.

물을..., 제발 그 상태 그대로 놓아둡시다. "이제 우리의 땅에 균형을 회복하고, (비버와 프레리도그 등) 자연의 공학자에게 제 역할을 맡길 때(299쪽)"가 됐습니다.

eylee@etnew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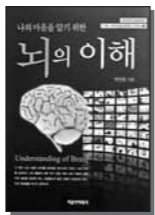
새로나온 책

뇌의 구조와 기능 쉽게 설명

◇나의 마음을 알기 위한

뇌의 이해=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통해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많은 것들이 밝혀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뇌의 핵심적 활동기전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라는 것이 뇌의 활동인 것은 틀림없으나 뇌는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어떻게 외부 자극을 저장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감정은 어떻게 생겨나며, 의식이란 뇌의 어떤 활동에서 비롯되는지 등 수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책은 뇌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 밝혀진 뇌의 구조와 기능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박찬용 지음, 자유이카데미 펴냄, 1만8000원.



공동의 문제 제대로 분석하기

◇나와 너의 사회과학=한국의 엘리트들은 자녀를 외국으로 보내 교육시키고 정치와 사회는 좌우로 나눠 소통 불능에 처해 있다. 한국 사회는 '이성의 언어' 대신 '돈의 언어'를 선택했고 무한경쟁 자본주의로 성장하면서 모순되고 왜곡된 현실을 보이고 있다.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태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그 해답으로 '사회과학 르네상스'를 말한다. 공동의 문제를 바로 보고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힘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의견을 모아 합의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의 언어가 수단이어야 한다. 우석훈 지음, 김영사 펴냄, 1만2000원.



사회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

◇보이지 않는 이야기=우리 곁에 없는 게 아니라, 늘 함께 있지만 애써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철거민,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폐광 마을 광부 등과 그들의 아이들의 삶이다. 지은이가 용산 참사,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태, 이주노동자의 한시적 특별 체류 정책 등 여러 현장에서 실제로 만났거나 지금도 만나는 아이들과 그 부모의 이야기가 오롯하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동화처럼 풀어낸 것도 이채롭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말하려는 지은이가 던진 울림이 매우 크다. 이석 지음, 김호민 그림, 봄나루 펴냄, 1만원.



한국서 먹히는 판촉 전략 제시

◇제대로 통하는 소셜 마케팅 7가지 법칙=한국형 마케팅 소셜 미디어 판촉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 소비자에게 통할 전략을 찾는 게 목표. 실시간·민첩성·진정성을 비롯한 7개 소셜 미디어 마케팅 법칙을 소개했다. 소셜 미디어 개념과 기존 마케팅과 어떻게 다른지도 담았다. 오리온, 도미노피자, 풀무원, 아시아나항공, 박용만 두산 회장, 정웅진 신세계 부회장 등 한국에서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앞서 시작한 이들의 성패 사례도 소개했다. 기업 홍보·마케팅 현장에서 일하며 관련 책까지 낸 두 저자의 경험과 생각을 우려냈다. 김태욱·이영균 지음, 다우출판 펴냄, 1만7000원.

